

국별 리포트

#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03.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의견 .....	1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447천 km <sup>2</sup>	G D P	303억 달러(2009년)
인구	28.1백만 명(2009년)	1 인 당 G D P	1,078 달러(2009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Uzbekistani Sum
대외정책	대서방 우호관계 회복 중, 러시아 및 중국과 협력관계 유지	환율(달러당)	1,467(2009년)

- 1991년 구소련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3위 규모의 천연가스(확인매장량 1.58조 m<sup>3</sup>), 상당량의 원유(확인매장량 6억 배럴) 및 금(매장량 세계 5위)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양호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폐쇄적 경제 구조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왔으나 1차 산업의 수출비중이 과다하고 최대교역상대국인 러시아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심해 국제 원자재 가격등락과 주요 무역상대국의 경제 상황에 크게 연동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나타냄.
- 1991년 이후 장기 집권 중인 카리모프(I. Karimov) 대통령이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88%의 득표율로 연임되었고, 2009년 12월 총선에서도 친정부 정당 출신 후보들만 의석 확보에 성공하여 당분간 공고한 1인 통치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안디잔 사태 이후 악화되었던 미국, EU 등 서방과의 관계는 미국의 지역안보전략,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일부 EU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러시아 및 중국과는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경제성장률	7.0	7.3	9.5	9.0	7.0
재정수지 / GDP	1.2	5.2	5.1	10.5	2.0
소비자물가상승률	12.3	11.4	11.9	14.4	10.2

자료: IMF, EIU

#### □ 실질 GDP 성장률 둔화

- 2009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2008년 하반기 이후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전년의 9.0%보다 다소 둔화된 7.0%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주요 수출상대국인 러시아의 경기 침체 전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세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세 전환

- 우즈베크은 2008년 수출 호조에 따른 외환 유입 증가, 임금 및 연금 인상, 식료품 가격 인상 등이 맞물려 14.4%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우즈베크 정부의 기본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통제를 통한 물가 상승 억제 노력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2009년 상승률은 10% 초반대로 하락했고, 2010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 재정수지 흑자 폭 감소

- 2008년 재정수지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원자재 가격 등으로 인해 GDP 대비 10.5%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사회보장, 국방 및 치안 관련 비용 부담 증가로 흑자 폭이 GDP의 2.0% 수준으로 감소한 후 2010년 소폭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구조정책

### □ 1차 산업과 특정국에 편중된 무역구조

-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금 및 면화 등 1차 산업의 수출 비중이 총 수출금액 대비 약 51%로 과다해 국제 원자재 가격 등락에 취약한 구조임. 2003년에는 금과 에너지가 각각 총 수출의 32%, 14%를 차지했으나 2007년 금의 수출 비중은 14%로 하락한 반면, 천연가스 등 에너지가 총 수출의 23%를 점하는 주요 수출품목이 되었음.
- 2008년 기준 최대 수출국은 우크라이나로 총 수출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17%를 점하고 있는 제2의 수출국인 러시아보다 비중이 큰 수출 파트너로 부상했음. 그 외 주요 수출국은 터키(8%), 카자흐스탄(6%), 방글라데시(5%) 등임.
- 러시아는 2008년 우즈베크 수입액의 25%를 차지했고, 그 외 주요 수입 상대국은 중국(15%), 한국(14%), 우크라이나(7%) 등임. 주요 수입품은 기계장비 및 부품류로 총 수입액의 54%를 차지했으며, 식음료가 8%로 그 뒤를 따름.(2007년 기준)
- 2005년 안디잔 사태 이후 미국, 유럽 등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교역국이 몇 개국에 한정되어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교역 비중이 높아 이 국가들의 경기변동에 따라 우즈베크 경제가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양호한 개발 잠재력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3위 규모의 천연가스(확인매장량 1.58조 m<sup>3</sup>, 세계 확인매장량의 0.9%), 상당량의 원유(확인매장량 6억 배럴) 및 금(매장량 세계 5위) 등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동국은 2008년 세계 연간 가스 생산량의 2.0%에 해당하는 622억 m<sup>3</sup>의 천연가스를 생산했으며, 그 중 약 126억 m<sup>3</sup>를 수출했음.

- 러시아 가스프롬(Gazprom)사는 2009년 우즈벡 가스 119억 m<sup>3</sup>를 연간 1,000m<sup>3</sup> 당 300 달러의 가격에 공급받았으며 2010년에는 연간 155억 m<sup>3</sup>의 가스를 유럽 내 수요에 연동되는 변동가격에 수입하기로 했음. (가격 조건은 2009년 수준으로 추정)
- 또한 2010년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 앞 가스 수출단가는 각각 1,000m<sup>3</sup> 당 231 달러와 220 달러로 합의되어 천연가스 수출은 향후 우즈벡의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우즈벡 국민들은 문맹률이 낮고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아 양질의 저임금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 수출 시장을 접하고 있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양호한 경제 성장세를 시현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 우즈벡은 폐쇄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왔으나, 향후 침체가 지속될 경우 수출 감소,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액 감소 등 간접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경기활성화를 위해 우즈벡 정부는 사회 인프라와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임금 및 연금 인상 등의 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동국은 2008년 말 향후 경기침체에 대비해 2009~12년간 예금자보호 제도 도입, 은행 자본금 확충, 공공요금 인상폭 제한(6~8%), 교통 인프라 보완, 전력 생산시설 현대화, 식료품 생산 증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최근의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우즈벡 정부는 2010년 개인 소득에 대한 최저세율과 소기업들에 주로 적용되는 제세 통합납부 방식인 단일세 (single tax payment) 기본 세율을 각각 11%와 7%로 인하했고, 사회보장제도 확충에 총지출의 59.1%를 투입할 예정임.

- 경기활성화 조치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300여 개의 기본 생필품 가격을 관리하고 있음. 은행의 현금 유통 규모 및 근로자들의 임금 인출 제한 등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통제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경제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 민영화 실적 부진

- 우즈베키스탄의 공공부문은 GDP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원 과잉, 허술한 관리체계(governance) 및 낮은 노동생산성 등 고질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 2009년 현재 총 2.5억 달러 상당의 10개 기업만 민영화 되는 등 뚜렷한 성과가 없음.
- 2007년 우즈벡 정부는 2011년까지 1,400여 개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민영화 대상 기업으로는 UZDaewooAuto 및 SamAvto (정부 지분 각각 50%), 국내 2위 규모인 Asaka 은행 (51%), 국영 가스공사인 Uzbekneftgas (49%) 및 통신공사인 Uzbektelecom(49%)가 언급되고 있음.
- 동국 정부는 금 및 보석 광산, 석유 및 가스 생산, 항공, 교통 등을 전략적 산업으로 규정해 45개 관련 국영기업에 외국인 투자자가 대주주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 외국인 투자환경은 미흡하나 투자 건수는 증가 추세

- 외국인투자자들은 외국인투자법 및 외국인투자보장법 등에 따라 국내 기업과 원칙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으나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만연한 부정부패, 과중하고 일관성 없는 세제 및 공정성이 결여된 법 체제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부진함.
-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6억 달러(2006)→10억 달러(2007)→14억 달러(2008)→15억 달러(2009. 10)
  - [우즈벡 대외경제부]
  - ※ IMF는 2008년 말 현재 외국인투자누계액이 22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 3. 대외거래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경 상 수 지	1,292	900	700	1,700	900
경 상 수 지 / GDP	9.1	5.3	3.1	6.1	3.0
상 품 수 지	1,447	1,774	2,296	3,300	1,530
수 출	4,757	5,615	8,026	10,370	9,980
수 입	3,310	3,841	5,730	7,070	8,450
외 환 보 유 액	2,895	2,401	3,222	4,881	5,292
총 외 채 잔 액	4,226	4,025	3,864	3,890	4,151
총 외 채 잔 액 / GDP	29.8	23.7	17.4	13.9	13.7
D . S . R .	13.8	12.9	8.7	6.7	6.9

자료: IMF, EIU

#### □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흑자 폭은 감소

- 우즈베크의 경상수지는 1998년 이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약 9억 달러 (GDP 대비 3.0%)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음. 이는 2008년의 17억 달러(GDP 대비 6.1%)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러시아와의 성공적인 가스공급 협상, 대러시아 자동차 수출 회복세 및 국제 면화 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수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비용 증가에 따라 흑자 규모가 크게 감소했음.
-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감소한 해외근로자의 송금 유입액도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2010년 이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 외채 상환 부담 감소

- 총외채잔액 규모는 3.8억~4.3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05년 29.8%에서 2009년 13.7%로 크게 감소했음.
- 대부분의 외채도 중장기 공적채무이고, 수출 증가 등으로 DSR은 2005년 13.8%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9년 6.9%를 기록했으며, 2010년 수치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됨.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 안정

#### □ 카리모프 장기집권 체제 공고화

- 구소련 붕괴 이전인 1989년에는 공산당의 대표로, 1991년 독립 이후에는 대통령으로 집권하고 있는 카리모프(I. Karimov)는 200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88%의 득표율로 7년 임기의 대통령직 연임에 성공했고, 2009년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야당 세력은 입후보조차 하지 못해 하원은 전원 친정부 정당 출신 후보들이 당선되어 당분간 1인 독재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1995년 대선, 2000년 대선, 2002년 대통령 임기 연장(5년→7년)을 위한 국민투표 등이 심각한 부정선거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통치체제는 공고화되었으며 가스 수출을 통한 안정적인 외화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서방 세계에서 촉구하고 있는 수준의 경제 체제나 투자 환경 등의 개혁성과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카리모프가 71세의 고령인 데다가, 건강 악화설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후계자가 불투명해 그가 권좌에서 물러날 경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유력한 후보로 그의 딸인 카리모바(G. Karimova) 현 제네바 UN본부 우즈벡 대표가 거론되나 부녀간 대통령직 세습이 이루어질 경우 정치 엘리트층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 2. 사회 및 소요사태

### □ 강력한 통치체제로 사회적 안정 유지

- 카리모프는 집권 이후 주요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요직을 모두 그의 지지자들로 선임했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으며, 수년간 정적들을 억압하고 국외로 축출해 그의 권력에 도전할 만한 세력이 부재함.
- 우즈베크 국민의 약 25%는 극빈층에 속하지만, 우즈베크는 폐쇄적 경제 구조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왔고, 임금 인상, 복지지출 확대 등 재정지출을 증가해 경제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사회 불안정의 가능성은 낮음.

### □ 전국적인 소요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테러 발생위험이 상존

- 지난 20년간 지속된 카리모프 독재 체제는 주도적인 반대세력 출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전국적인 차원의 소요 가능성은 거의 없음.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합법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소규모의 저항 움직임은 증가할 수 있겠으나 이 또한 정부에 의해 신속히 진압될 것으로 보임.
- 2009년 11월, 우즈베크 정부는 투옥 중이던 야당 지도자 우마로프(S. Umarov)를 석방하는 등 인권 개선 노력을 보이는 듯 했으나 이와 별도로 알카에다 테러조직과 연계된 우즈베크 이슬람운동 (the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세력, 소수민족, 종교단체 등에 대한 비인권적인 탄압은 계속되고 있어 폭탄테러 등 사회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 3. 국제관계

### □ 미국, EU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

- 2005년 안디잔 사태 이후 우즈벡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서방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소원해졌고 미국 및 EU는 경제원조 중단 및 안디잔 관련 고위 공무원의 해외자산 동결 등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했음.
- 하지만 동국은 아프가니스탄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의 아프간 전쟁 수행에 중요한 보급로이며,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경을 접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지정학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어 서방 국가들은 우즈벡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음.
  - 2009년 12월 EU는 동국에 대한 제재를 모두 철회했고 미국도 2009년 4월 우즈벡과 아프가니스탄 행 비군수물자의 우즈벡 영토 통과를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해 공개적으로 동국을 대테러 전쟁의 전략적 파트너로 지목하고 있음.
-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우즈벡의 열악한 산업 구조와 비우호적인 투자환경으로 인해 실제 교역량과 투자금액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 중국과의 관계 강화, 러시아의 영향력 다소 감소

- 중국은 지난 10년간 중앙아시아 지역의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왔으며, 2009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관통하는 총 1,833km의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개통하는 등 꾸준한 자원외교의 결실을 보고 있음. 동 가스관 개통으로 중앙아시아 3국은 러시아 외의 주요 가스 수출선을 확보해 대러시아 협상력이 강화되었음.
- 우즈베키스탄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도입해 중앙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2008년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에서 탈퇴하는 등 러시아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전통적인 우호관계 및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와는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 인접국과의 국경 분쟁 지속

- 우즈베크는 인접국과 크고 작은 무역 분쟁과 국경 획정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타지키스탄과는 가스공급과 관련된 다툼이 지속되고 있음. 타지키스탄은 동국 내 가스 소비량의 95%를 우즈베크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우즈베크가 2010년 초 가스대금 지불 지연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가스 공급량을 절반으로 감축해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었음.
-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타지키스탄은 댐 건설을 통한 수력발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댐 건설이 가시화될 경우 면화 재배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상당 부분 타지키스탄에 의존하고 있는 우즈베크의 면화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 OECD : 7등급 (2007. 1) → 6등급 (2008. 1) → 6등급 (2010. 1)
- \* LI : 127/177 (2009. 3) → 130/178 (2009. 9)
- \* Euromoney : 172/186 (2009. 9) → 123/186 (2010. 3)

###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 미국 EXIM : 제한적 인수가능
- \* 영국 ECGD : 단기 인수가능, 중기인수는 제한적
-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3. 외채상환태도

## □ 외채상환부담 감소

- 우즈벡 정부는 수출 증대 및 해외근로자의 외화송금액 증가에 기인한 경상수지 흑자로 공적채무를 정상상환하고 있음. 총 대외채무 중 약 85%가 공적채무일 것으로 추정됨.
- 우즈벡의 경제 상황과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했을 때 GDP 대비 15~20% 수준의 총외채잔액은 동국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파악됨. (2009년: 13.7%) 대외채무 중 단기채무의 비중이 5.1%로 낮아 단기적으로 외채상환 불능이나 리스케줄링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우즈베키스탄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6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649	748	1,123	1,150	자동차부품, 승용차, 원동기 우라늄, 면사, 천연섬유원료
수 입	40	104	263	47	
합 계	689	852	1,386	1,197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 1992년 1월 29일 (북한과는 1992. 2. 7 수교)
- 주요협정 : 과학기술협력협정,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이상 1992년), 항공협정, 문화협정(이상 1994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98년), 세관협력협정(1999년), 형사사범공조조약(2003년), 범죄인인도조약(2004년), 사회보장협정(2005년)
- 2009년 말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약 12억 달러에 달함.
  - 수출은 자동차부품, 승용차, 원동기를 중심으로 11억 5천만 달러를 기록, 수입은 우라늄, 면사, 천연섬유원료를 중심으로 약 4천 7백만 달러를 기록
- 해외직접투자(2009년 12월말 누계, 총 투자 기준) : 157건, 500,867천 달러

## V. 종합의견

- 주요 수출품목인 천연가스, 금, 면화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 행진에 따라 상품·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여 대외유동성이 증가되었으나,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세계 경기침체로 2009년 동국 경제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음. 하지만 2010년 세계 경기회복 전망, 경기활성화 조치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힘입어 전년 수준의 성장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내부적으로는 카리모프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 체제 하에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미국, EU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중국과는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러시아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다소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하지만 1차 산업과 특정국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 등락과 주요 무역상대국의 경제 상황에 크게 연동되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부진한 경제 개혁성과, 더딘 민주화 과정, 고령의 카리모프 후계구도의 불확실성과 극빈층의 내재된 불만이 잠재적 불안 요소로 남아 있음.

책임조사역 허정옥 (☎02-3779-6653)  
E-mail : [johuh@koreaexim.go.kr](mailto:johuh@koreaexim.go.kr)